

[5차시] 틀리기 쉬운 말



1. 윗옷 / 옷옷

‘윗옷’과 ‘옷옷’중 어느 것이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뜻이 다르므로 구별해 써야 합니다.

‘윗옷’은 바지나 치마와 짝을 이뤄 위에 입는 옷으로 상의(上衣)를 가리키며, 반대말은 하의를 나타내는 ‘아래옷’입니다.

‘옷옷’은 남방이나 티셔츠 등 평소 입는 옷 위에 덧입는 외투나 점퍼 따위를 말합니다. “그녀는 여행을 떠나기 위해 윗옷 두 벌과 아래옷 세 벌을 준비했다” “날씨가 추워 옷옷을 걸쳐 입었다” 등처럼 쓰입니다.

‘윗(위)-’과 ‘옷-’은 몇 가지 원칙만 알아두면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옷-’과 ‘윗-’은 명사 ‘위’에 사이시옷이 결합된 것으로 해석해 ‘윗-’으로 통일했습니다(윗니, 윗도리, 윗목, 윗변, 윗입술, 윗자리). 하지만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위쪽, 위층, 위턱)로 씁니다.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옷-’(옷돈, 옷어른, 옷옷)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간단히 말해 ‘위’와 ‘아래’의 대립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엔 ‘윗(위)-’을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옷-’을 쓰면 됩니다.

2. -율 / -률

‘율’과 ‘률’은 원래 음가가 ‘률(率)’인데도 ‘환율-확률’ ‘성장률-이자율’ 등처럼 달리 씁니다.

‘-율’과 ‘-률’이 쓰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앞말에 ㄴ받침이 올 땐 ‘율’로 적습니다.

<생존+율, 환율, 생산율, 지분율, 교환율>.

② ‘ㄴ’외의 받침이 있는 말 뒤에서는 모두 ‘률’로 표기합니다.

<수익+률, 성장률, 손실률, 부담률, 응답률>

③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율’입니다. ‘이자+율’을 ‘이자률’로 말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연체+율, 이자율, 연소율, 감세율, 야투율>

[5차시] 틀리기 쉬운 말



※ 심화학습

-렬 / -열

인명에 자주 나오는 렬(烈)자는 이름 뒷글자로 올 경우(이상렬/이상열)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요. 이 경우도 ‘-울’과 ‘-를’에서의 규칙이 적용돼 ‘이상+ 렬’(ㄴ외의 받침+烈)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률(律)’이 ‘운율, 법률, 규율’이 되거나 ‘렬(列)’이 ‘진열, 행렬, 나열’ 등으로 표기되는 것도 다 이 같은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3. 과반수 이상

과반수의 “과(過)”가 넘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과반수’라는 단어 자체가 반을 넘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과반수 이상’은 의미가 중복되는 말입니다. ‘과반수’와 ‘이상’은 함께 쓰일 수 없습니다. ‘과반수 이상’은 겹말로 의미가 중복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의결정족수가 된다” “과반수 이상이 찬성함으로써 안건이 통과됐다”는 모두 ‘이상’을 없애고 “과반수가 참석해야 의결정족수가 된다” “과반수가 찬성함으로써 안건이 통과됐다”고 해야 합니다.

‘이상’이라는 말을 굳이 사용하려면 ‘반수 이상’이라고 하면 됩니다. “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의결정족수가 된다” “반수 이상이 찬성함으로써 안건이 통과됐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표현입니다.

※ 심화학습

그 밖에 수와 관련해 의미가 중복되는 것들

‘약’과 ‘가량’ ‘정도’는 비슷한 뜻이므로 함께 쓰면 중복입니다. ‘약 80% 가량’은 ‘약 80%’ ‘80% 가량’ 중 하나로 해야 합니다. ‘약 80% 정도’는 ‘약 80%’ 또는 ‘80% 정도’로 표현해야 의미가 중복되지 않습니다.

남는다는 것을 뜻하는 ‘~여(餘)’도 마찬가지입니다. ‘10여만 원 이상’은 ‘10여만 원’ 또는 ‘10만 원 이상’으로 표현해야 의미가 중복되지 않는 바른 말입니다.

[5차시] 틀리기 쉬운 말



4. ~를 삼가다

‘삼가다’는 ‘조심하다’ ‘지나치지 않도록 하다’ ‘금지하다’의 뜻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삼가하다’로 잘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장소의 안내판에는 십중팔구 ‘~를 삼가해주십시오’ 또는 ‘~를 삼가합시다’ 형태로 적혀 있습니다. “흡연을 삼가해주십시오” “술을 드신 후 이용을 삼가해주십시오” “무단 횡단을 삼가합시다” “고성방가를 삼가합시다” 등으로 돼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도 “욕설 등 저속한 내용을 삼가해주십시오” “광고성 글을 삼가합시다” 등 ‘삼가해주십시오’ ‘삼가합시다’가 많습니다. 기사에서도 “단식 중인 그는 이날부터 외부인의 방문도 받지 않고 언론 접촉도 가급적 삼가할(‘삼갈’의 잘못) 것으로 알려졌다” 등 ‘삼가하다’ 형태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가다’를 ‘삼가하다’로 쓰게 되는 이유는 동사의 기본형이 ‘~하다’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삼가다’의 발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삼가다’를 활용한 ‘삼가니’ ‘삼가고’ ‘삼가서’ ‘삼갑시다’보다 ‘삼가하다’를 활용한 ‘삼가하니’ ‘삼가하고’ ‘삼가해서’ ‘삼가합시다’가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발음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삼가다’를 표준어로 삼고 있어 ‘삼가하다’로 쓰면 틀린 것입니다. ‘나가다’ ‘오가다’ ‘막가다’처럼 기본형은 ‘삼가다’이고 그 활용은 ‘삼가+고[니/면/서/자/라/주십시오]’ 등으로 해야 하며, 명사형은 ‘삼가함’이 아니라 ‘삼감’입니다.

5. 담그다 / 담다

요즘은 김치를 집에서 하지 않고 사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된장, 고추장은 아직은 직접 만드는 집들이 꽤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냄새 때문에 메주를 띄우기가 좀 곤란하지요. 하지만 메주를 파는 곳이 흔하기 때문에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장을 만드는 철에는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자주 오갑니다.

“집에서 된장 ‘담으십니까?’ 우리는 시골에서 부모님이 ‘담궈서’ 보내주셔요”

“김치는요? 요즘 김치를 집에서 ‘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사 먹지”

이처럼 된장이나 김치를 만드는 것을 ‘담구다’나 ‘담다’로 잘못 표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담그다’가 바른 말입니다. ‘담구다’는 아예 없는 말이므로 여기서 변화한 ‘담궈서’ ‘담구니’ ‘담궈다’도 쓸 수 없습니다. ‘담가’ ‘담그니’로 해야 바른 말입니다. ‘담다’는 ‘물을 병에 담다’ ‘도시락에 반찬을 담다’처럼 그릇 등의 용기에 무엇을 넣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화에서는 ‘담그다’의 활용형인 ‘담그십니까?’ ‘담가서’ ‘담그는’으로 써야 합니다.



6. 손톱깎이

집에서 많이 쓰는 물건 중에 ‘손톱깎이’ ‘연필깎이’가 있습니다. ‘손톱깎기’ ‘연필깎기’와 발음이 비슷(깎이[까끼], 깎기[깍끼])하다 보니 적을 때는 헷갈립니다.

‘깎이’는 ‘깎다’는 동사의 어간에 사람·사물·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이’가 붙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때밀이, 구두닦이, 젓먹이, 재떨이, 옷걸이, 목걸이, 감옥살이, 가슴앓이 등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는 명사, 형용사, 의성어, 의태어 등에 붙어 사람, 사물의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절름발이, 애꾸눈이, 멍청이, 똑똑이, 똥똥이, 딸랑이, 짹짹이 등입니다.

‘손톱깎기’ ‘연필깎기’의 ‘깎기’는 ‘깎다’는 동사에 명사 구실을 하게 만드는 어미 ‘-기’가 붙은 형태로 단순히 손톱이나 연필을 깎는 행위를 뜻합니다.

“나 손톱 깎기 싫어” “연필 깎기는 정말 귀찮아” “혼자이기는 해도 외롭지 않다” “사람이 많기도 하다” 등에서처럼 ‘-기’는 동사, 형용사가 문장에서 명사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 심화학습

겨우살이, 겨울맞이

겨울 동안 먹고 입고 지내기 위해 준비하는 옷가지나 양식 등을 통틀어 ‘겨우살이’라 하고, 그렇게 준비해 다가오는 겨울철을 맞는 일을 ‘겨울맞이’라 한다. 이때의 ‘-이’도 명사, 형용사나 의성어, 의태어 등에 붙어 사람, 사물, 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입니다.